

1997년 1월 10일, 창업 희망하는 이공계 학생 76% 육박

벤처의 열기가 한창 뜨거웠던 1997년 당시, 협회는 창업로드쇼에 참석한 이공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려 75.9%의 학생들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해 벤처의 희망적인 상황을 대변했다. 응답자 중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들의 창업 희망율(86%)은 특히 더 높았다. 창업을 원하는 이유로는 '취업보다 사업에 흥미를 느껴서'(52.9%), '취득한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20.6%), '취업난과 고용인원 감축에 따른 취업환경 불안 때문에'(16.8%) 등이 꼽혔다. 창업 희망 업종은 정보통신·전자업종이 가장 선호됐으며, 기계·생산기공업종, 에너지·환경, 소재분야 순이었다.

9년 전 라올랐던 창업의 열기가 다시 재현되기를!

1998년 1월 3일, 코스닥 시장 96개사 벤처기업 지정

코스닥시장이 일반기업부, 벤처기업부, 외국기업부로 개편되면서 총 359개 코스닥기업 가운데 아펙스, 텔스정보통신 등 96개사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때 벤처기업 지정요건으로는 '수출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 총액이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사업화한 회사, 공업발전법 등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업체'가 적용됐다. 이들 96개사는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에 따라 액면가를 1백원까지 분할하거나, 의결권 없는 수식을 발행수식 총수의 1/2까지 발행하는 등 혜택을 얻었다.

96개이던 상장벤처기업 수가 400개로 늘었으니 감회가 새로울따름이로세~

2000년 1월 7일, 국내 첫 강의실 벤처 탄생

수업 결과물을 사업화한 '강의실 창업'이 국내 처음으로 등장했다. 한국과학기술원(K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1999학년도 가을학기 '경영정보고급문제' 과목 수강생들이 과제물을 상품으로 개발해 디지털토넬이도라는 인터넷 회사를 설립한 것. 이들은 공동발표 과제물로 '디지카드'라는 신개념 인터넷 개인명함 서비스를 제안했는데, 사업성이 유망하다는 점에 착안해 실제 창업까지 하게 됐다. 이 수업은 인터넷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방법론에 대한 교과목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 실천 우수로 수업을 진행한 덕에 창업을 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

e비즈니스 솔루션 사업분야로 확대, 지금까지도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니 어찌 아니 기쁘랴.

초우량 기업은 사람이 만든다 《미래기업의 인재코드》

사람이 기업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재전쟁이 치열하다. 이는 최근의 인재경영 열풍과도 맥락을 같이 하며, 사람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고 경영활동을 펼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책은 이러한 인재경영 트렌드의 변화에 발맞춰 향후 인재전략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다. 미래 기업경쟁력을 좌우할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방법부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방법, 지속적인 동기여부를 이끌어내는 평가 보상 방법까지. 특히 윌마트, 사우스 웨스트 에어라인 등 탁월한 인재경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일류기업들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인재전략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책에서 말해주듯 이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유지 관리하는 기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핵심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기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도 '사람'이고 실행하는 것도 '사람'이라는 점에서, 기업이 선택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선택받는 기업'이고 싶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물론 핵심인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제안 펴냄)

